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설지 (인문계열)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Ⅰ. 출제 의도

1) 지문과 도표에 대한 독해 능력, 분석 능력, 종합 사고 능력 평가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지문들과 도표를 통해 독해 능력, 분석 능력, 종합 사고 능력 등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지문으로는 주로 각 분야의 고전,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문학 작품, 그 밖의 글 등을 사용하였다.

2) 논제 이해 및 입론 능력 평가

: 주어진 논제를 이해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지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 지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지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지문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과 정확한 표현 능력 평가

: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Ⅱ. 지문 해설

(가)

(가)는 콰메 엔터니 애피아(K. A. Appiah)의 『세계시민주의: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한 윤리학』의 일부를 발췌·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우리의 감정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서 제3세계의 빈민을 돕는 것과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빈곤 문제의 이유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이 우리에게 별 부담이 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성적(理性的)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제3세계의 빈민을 돕는 것과 같은 요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속하는 자신과 주변인들을 넘어 우리 '밖'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안'과 '밖'의 경계를 부인한다.

(나)

(나)는 1921년 9월 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언어(言語)의 국제화(國際化) 운동(運動)」이라는 글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은 인공어인 에스페란토를 세계 공통어로서 보급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우선 우리나라(조선)의 경우 구미 각국의 문명을 속히 받아들여 문명의 근대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에도, 언어의 다름이 문명의 신속한 수입에 방해가 됨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발달된 문명을 더 발달시키고 생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구미 각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야기한다. 또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언어의 국제화가 필요한 일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 속에서 (나)는 에스페란토라는 공통어가, 비록 그것이 인공어로서 각 지방의 특성과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함을 역설하며 조선인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다)

(다)는 1975년『한국문학』에 발표되었던 최일남의 소설「서울 사람들」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오랜 서울 생활 끝에 겨우 얼마쯤 안정을 얻은 고교동창생 네 사람의 시골 여행을 통해 소시민들의 속물근성을 비판해 낸다. (다)는 소시민들이 지닌 그런 속물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다)에서 서울 생활에서 벗어나 보고자 어느 시골로 여행을 간 네 사람은 그곳에서 유년을 떠올리면서 향수에 젖기도 하고, 인정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도시의 생활과는 다른 시골 생활에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서울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은 시골 생활에서 '자고 먹는 것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온 생활과의 위화감' 또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

(라)는 갤브레이드(J. Galbraith)의『대중은 왜 빈곤한가(*The Nature of Mass Poverty*)』와 매시(D. Massey)의 논문 "The New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하여 편집한 글이다. (라)는 우선 이주에 관해 널리 퍼진 세간의 편견이 이주를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량 이민에 따르는 사회 불안과 긴장은 실제보다도 과장되거나 더 오래 영속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고, 이주가 이주를 받아들인 국가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라)에 따르자면, 이주(이민)가 지닌 의의는 이민 역사의 대표적 일례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진 유럽인의 대규모 미국 이주에서 잘 드러난다. 스웨덴 이주민들의 경우에, 이주민들은 지금의 미국이라는 용광로(melting pot)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마)

(마)는 소동파(蘇東坡)의 <왕자불치이적론(王者不治夷狄論)>, 즉 '왕이 된 이는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글의 일부분이다. 소동파는 공자가『춘추』에 쓴 "공(公)이 잠(潛) 땅에서 융(戎)과 회맹(會盟)했다."는 내용에 대해 왕이 된 이가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공은 오랑캐를 만났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하휴(何休)가 공자의 언급을 분석한 내용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낸다. 소동파의 논의에 따르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대상에 대해 은미(隱微)한 평가를 담았다고 여겨지는 공자의 '춘추필법' 속에 담겨 있다.『춘추』를 관통하는 공자의 서술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동파는 "공(公)이 잠(潛) 땅에서 융(戎)과 회맹(會盟)했다."는 표현이 공자가 오랑캐 융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예법을 심하게 나무란다면 저 융은 장차 감당하지 못하고 그 노여움을 폭발시킬 것이니, 이렇게 되면 그 화가 크"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여 "그들이 온 것에 대해 '회맹하였다'고 쓰고, 이와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다고 논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동파는 공이 융을 만난 것, 그리고 중원의 법도인 회맹했다는 표현을 융에 대해 쓴 것 등을 해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왕이 된 이는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 낼 수 있었다.

Ⅲ. 문항 취지

1. 【문항 1】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을 요약하는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정해진 분량으로 요약하고, 다음으로 (나)~(마)에서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것들을 모두 선택하여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혀야 한다.

2. 【문항 2】

이 문항은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결과를 문항의 내용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 【문항 3】

이 문항은 서로 다른 입장에 전제되어 있는 입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에서 병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가)~(마)의 주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참고로, 위의 제시문은 조세희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에 들어 있는 「클라인 씨의 병(甁)」의 한 대목이다.

Ⅳ. 우수답안

1.【문항 1】

제시문 (가)는 우리에게 세계적 빈곤을 해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세계적 빈곤의 문제는 능동적 원리의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세계시민의 화합을 통해 세계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일원론적 세계관의 입장이다.

반면 제시문 (다)와 (마)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입장이다. 우선 제시문 (다)는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소시민들이 시골에서의 생활에 동화되려 노력하지만 결국 도시와 시골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제시문 (가)와 달리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화합시키지 못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마)는 공자가 저술한 '춘추'라는 저서에서 중국인이 세운 나라인 제나라, 진나라와 오랑캐가 세운 나라인 진나라, 초나라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모습을 그린다. 또한 오랑캐인 융을 교화하거나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화합하거나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표현한다. 이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변방인을 철저히 구별 짓고자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시민을 모두 화합시키고자 하는 제시문 (가)의 일원론적 세계관에 상반되는 견해이다.

2.【문항 2】

B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절에 관계없이 매월 판매량이 일정한 것을 볼 때, 생활필수품에 해당할 것이다. C는 판매량이 B나 A보다 높고 A가 경기 때문에 적게 팔릴 때 C의 판매량이 그만큼 증가한 점을 볼 때, A의 대체품에 해당할 것이다.

B의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만큼 누적되며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항상 써야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에 해당하는 예로는 기름 등의 자동차 연료를 들 수 있다. C는 자동차 판매량 추이와 비슷한 판매량 추이를 보이지만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판매량이 적다. 그러므로 C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함께 구입하지만 꼭 구매할 필요는 없는 상품일 것이다. 그러므로 C를 생산하는 기업이 C의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C의 단가를 낮추는 대신 C가 부착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3.【문항 3】

제시문에서 ‘나’는 병의 안과 밖을 일원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필자는 이러한 ‘나’의 시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세계화·개방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 분리적인 사고만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상에 어긋날뿐더러 통합된 사고를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서처럼 전 인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여길 경우 해결이 매우 힘들어진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표어를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한다. 인류는 서로를 돕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또 제시문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언어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대응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통어의 사용을 위한 노력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라)에서 언급된 이민자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이질적인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각자의 역량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근래에 다문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문화로의 동화나 개별체로서의 공존보다는 용광로 안에서 철과 여러 광물이 함께 녹아 융합되듯이 문화도 융합되어 갈등이나 경쟁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제시문 (다)에서처럼 시골의 생활과 도시의 생활로 나누어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생활에 불편함과 권태를 느낀다. 이처럼 분리된 사고는 우리를 이질감과 불편함에 빠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을 찾고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줄 아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제시문 (마)에서는 오랑캐를 자신과 다른 인간들로 규정짓고 배척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리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서로가 융합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서로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양국의 발전이 더욱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분리된 사고는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저발전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차단기와 같은 존재로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인 지금, 통합적인 사고와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는 사고는 필수적이다. 전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원론적 사고는 모두가 갖춰야할 인식이다.